

# ‘아일랜드’의 전유, 그 욕망의 ‘이동(移動)’을 따라서

김모란\*

- I. 제국과 식민지의 근대, 그리고 동경(憧憬)의 아일랜드
- II. 『켈트문학연구』와 켈트의 전유
- III. 켈트론의 ‘이동’과 일본민족의 자화상
- IV. ‘아일랜드’에의 욕망, 기쿠치 칸을 중심으로
- V. ‘아일랜드’의 재현, 조선청년에게 위탁된 꿈

## I. 제국과 식민지의 근대, 그리고 동경(憧憬)의 아일랜드

근년 『모던니혼(モダン日本)』 조선판이 잇달아 번역 출판됨에 따라, 제국 일본과 식민지 조선을 가로지르는 근대적 문물의 흐름에 대한 연구가 활기를 띠고 있다. 또한, 『모던니혼』의 편집책임자라는 마해송의 또 다른 얼굴, 즉 민족주의적인 동화 작가로서의 마해송이 아닌, 제국의 중심 동경에서 유력잡지의 편집책임자 자리까지 거머쥐었던 식민지 출신 저널리스트로서의 마해송에 대한 관심도 점차 증대되고 있다.<sup>1)</sup>

---

\* 와세다대학교 연극박물관

1) 이는 물론, 동화 작가로서의 마해송을 논한 연구들이 그의 저널리스트로서의 활동에 무지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만, 그러한 연구에서는 마해송의 이러한 또 다른 얼굴이, 식민지 청년의 현실도피나 가면의 모습으로서 안일하게 처리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에서 벗어나, 마해송의 동경에서의 활동이나 행적을 재고하고자 한 연구로서는, 川村湊, 「馬海松と『モダン日本』」, 池田浩士編 『『大衆』の登場—ヒーローと讀者の20~30年代』, インパクト出版會, 1998, 120~130쪽; 盛合尊至, 「馬海松と『モダン日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식민지 출신의 모던보이 마해송, 아니 일본명 마카이쇼(馬海松)가 최근 일본에서도, 그것도 대중문화의 영역에서 주목받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의 발단이 된 것은 2002년부터 2003년에 걸쳐 문예지 『文学界』에 연재된 후, 2004년에 단행본으로 출판된 이노세 나오키(猪瀬直樹)의 소설 『마음의 왕국(こころの王国)』이다. 이 소설은 일본의 유명작가이며 출판인이었던 기쿠치 칸(菊池寛)과 그의 출판사 분게슌주(文藝春秋)에 있었던 “조선반도 출신의 미청년” 마카이쇼, 그리고 기쿠치의 애인 이라 알려졌던 여비서 미도리코(碧子)의 삼각관계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그러나, 이 소설에서 주인공들의 삼각관계 못지 않게 주요한 축을 이루고 있는 것은, 일본과 조선반도, 그리고 영국과 아일랜드의 교차라는 구도이다.

특히, 이러한 주제가 가장 명확히 제시되는 부분은 소설의 제15장, ‘동경(憧憬)의 애란토(愛蘭土)’<sup>2)</sup>에서인데, 이 장은 미도리코가 꿈을 꾸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그 꿈의 내용은 기쿠치의 화곡 「폭도의 아들(暴徒の子)」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폭도의 아들」은 아일랜드의 극을, 기쿠치가 일본의 ‘신영토’에서 일어난 폭동으로 변안한 작품이다. 「폭도의 아들」의 무대인 ‘신영토’는 실질적으로는 조선이 아닌 대만으로 알려져 있고, 소설 내에서도 그 점이 언급되고 있지만, 미도리코의 꿈에서는 ‘신영토’의 청년 ‘壽春’(이)가 조선 청년 마해송과 오버랩 됨으로써, 아일랜드와 조선의 동일화가 기도되고 있다. 이처럼 아일랜드와 조선의 동일화는 이 소설을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인 셈인데, 이는 소설 속의 기쿠치 칸이 니혼대학 영문학 강좌에서 영국과 아일랜드의 관계를 설명한, “이 두 나라는, 일본의 본도(本島)와 큐슈(九州)와 같은 관계가 결코 아닙니다. 일본과 조선과 같은 관계입니다. 아일랜드라는 하나의 민족이, 타국인 영국에 합병된 것입니다”<sup>3)</sup>라는

本』—戦前日本における朝鮮文化の紹介』, 東北大學國際文化學會編, 『國際文化研究』 5号, 1998. 12, 109~122쪽; 곽형덕, 「마해송의 체일시절—문예춘추, 모던일본에서의 행적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33집, 5~33쪽이 있다.

2) 이하, 애란(愛蘭), 애란토(愛蘭土) 등, 아일랜드에 대한 당시의 표기는 원문 그대로 인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인용 외의 곳에서는 필요에 따라 ‘아일랜드’로 바꿔 말하도록 한다.

발언에서 더없이 확실히 드러나고 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 소설이 2008년에 〈언덕을 넘어서(丘を越えて)〉라는 제목으로 영화화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아일랜드’로서의 마카이쇼가 더욱 명확히 분절화 되었다는 것이다. 영화에서도 소설과 마찬가지로 마카이쇼는 미도리코와의 대화에서 기쿠치와의 첫 대면을 회상한다. 그 회상에 따르면, 위에서 인용한 영국과 아일랜드의 설명으로 시작된 첫 강의가 끝나자, 마카이쇼는 기쿠치를 붙잡고 “저는 일본에 병합된 조선에서 온 마카이쇼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한다. 이에 놀란 기쿠치는 다음 강의 때 마카이쇼의 얼굴을 바라보며 “기차를 타고, 아일랜드와 같은 시골에 가자”로 시작되는, 마루야마 카오루(丸山薫)의 시를 읊는다. 소설에서는 기쿠치에 의한 아일랜드와 조선의 동일화 부분에서 회상이 끝나는 데 비해, 영화에서는 ‘아일랜드’를 내면화한 마카이쇼가 기쿠치의 앞에 등장함으로써, 기쿠치와 마카이쇼의, ‘영국’과 ‘아일랜드’로서의 마주보기가(비록 과거를 회상하는 언어에 의해서이긴 하지만) 시각적으로 제시되며, ‘아일랜드’라는 관념이 어느 한 쪽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 둘의 사이에서 구축되고 있음이 강조된다.

식민지 조선에서 아일랜드와 조선을 동일시하는 담론이 존재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과거 한국의 비교문화적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사실은 널리 인식되어 왔으며, 이는 특히 김우진이나 박승희, 혹은 극예술연구회에 의한 조선의 근대극 운동에 대한 연구가 아일랜드 연극의 의미와 역할을 논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언급되어 왔다. 그러나, 아일랜드와 조선의 관계를 논하는 최근의 논의들은 근년 새로운 방식으로 이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 과거의 논의들이 아일랜드와 조선의 동일화를 하나의 전제로 하여 개별 작품이나 담론에 접근했다고 한다면, 최근의 논의의 중심은 아일랜드와 조선이 동일시 되는 과정 그 자체에 있다.<sup>4)</sup> 이러한 연구에서는 ‘아일랜드

3) 猪瀬直樹, 『こころの王國―菊池寛と文藝春秋の誕生』, 文藝春秋, 2004, 211~212쪽.

4) 대표적인 것으로, 이태숙, 「조선·한국은 아일랜드와 닮았다?—아나이하라 타다오의 아일랜드와 조선에 관한 논설」, 『역사학보』 182집, 2004. 6, 97~122쪽 및 이승희, 「조선문학의 내셔널리티와 아일랜드」, 민족문화사연구소 기초학문연구단편, 『탈식민의 역학』, 소명, 2006, 280~307쪽을 들 수 있다. 또한 이와 관련해 주목할 만 한 일본측의 연구로

드=조선'이라는 도식이 결코 자연시 되지 않으며, 둘 사이의 간극을 뛰어넘어 아일랜드의 전유가 시도되는 현상 자체가 문제시 된다. 또한, 이러한 논의에서는 '아일랜드'라는 타자의 의미가 '우리'의 구축, 즉 '조선인' 혹은 '조선문학'의 동일성의 구축과 관련되어 탐구된다.

본 논문은 이러한 근래의 흐름에 동조하면서, 제국/식민지의 근대체험에서 형성된 아일랜드를 둘러싼 담론을 재조명하려는 시도이다. 요네타니(米谷)가 말하듯이, “아시아/일본을 관통하며, 그 틈에서, 근대 비판의 시좌와 틀을 어떻게 갱신해 나갈 것인가”<sup>5)</sup> 하는 것이, 제국의 근대와 식민지 근대가 폭력적으로 얹혀 형성된 동아시아의 근대 경험에 대한 반성과 고찰에서 시급한 문제라고 한다면, ‘아일랜드’를 사고하는 우리의 틀도 그러한 갱신을 필요로 하는 부분인지도 모른다. 본 논문이 여기에 제시하고자 하는 그 갱신의 수단은 ‘아일랜드’를 조망하는 시공간적 틀을 확대하는 것이다. 그로 인해 ‘아일랜드’가, 식민지 조선인의 탈식민적 저항의 계기, 혹은 식민주의 담론의 재생산으로 귀결되고 만다는, 저항의 한계를 가늠하는 지표로서만 주목되는 현상에서 탈피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기쿠치와 마카이쇼의 마주보기에서 ‘아일랜드’라는 관념이 구축되었듯이, 영국과 일본, 혹은 아일랜드와 조선의 교차가 일본과 조선의 상호작용이었음을 고려할 때, 이것이 결코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주체화의 문제가 아님은 분명하다.

이처럼 아일랜드를 둘러싼 담론의 장을 보다 넓은 시야에서 조망하고자 한다면, 애초에 근대 유럽에서 아일랜드가 주목받게 된 계기로까지 소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그 계기로서 르낭(Ernest Renan)과 아놀드(Matthew Arnold)의 켈트론에 주목하여, 이러한 켈트론이 제국일본에서 어떠한 켈트, 혹은 아일랜드 담론을 재생산하게 되었는가를 먼저 고찰하고자 한다. 그 후에 처음에 언급했던 기쿠치 칸의 경우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봄

는 齋藤英里, 「『アイルランド・朝鮮類比論』の展開—三・一運動後の日本とアイルランド」, 後藤浩子編, 『アイルランドの経験—植民・ナショナリズム・國際統合』, 法政大學出版局, 2009, 319~344쪽이 있다.

5) 米谷匡史外, 「アジア/日本を貫く〈近代〉批判のために」, 市野川容孝・小森陽一編, 『壊れゆく世界と時代の課題』, 岩波書店, 2009, 1쪽.

으로써, 조선에서의 ‘아일랜드’에까지 그 논의를 이어갈 것이다. 본 논문에서 기쿠치는 유럽을 기원으로 하는 켈트 담론과 제국 일본의 아일랜드에 대한 모순된 시선, 그리고 조선으로 옮겨진 아일랜드의 재현이라는 꿈을 잇는, 하나의 연결 고리인 셈이다. 이 명확한 연결 관계를 애써 단절시키는 과오만 범하지 않는다면 이 논의는 이제까지의 아일랜드에 대한 담론 연구를 갱신할 소정의 가능성을 담보할 것이라 믿는다.

이처럼, 유럽과 일본, 그리고 조선을 횡단하는 본 논문에서 기쿠치가 이들을 매개하는 하나의 상징적 인물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매개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이동(移動)’이라는 행위이다. 본 논문에 등장하는 ‘이동’이라는 용어는, 영어 ‘translation / translate’에 해당한다. ‘번역’이라는 기존의 용어 대신에 여기에서 굳이 ‘이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translate’가 애초에, 현재의 주요한 의미인 ‘하나의 언어를 다른 언어로 바꾸는 것’이나 ‘바뀌 말하는 것’ 뿐 아니라 ‘transfer’, ‘transform’의 의미를 포함하는 개념임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이처럼 ‘translate’가 물리적 이동, 언어 간 혹은 언어내의 이동, 형상, 외관, 성질 등에서의 이동(즉, 변용)이라는 다양한 이동의 의미를 갖는 것은, 그 어원이 라틴어 ‘transfero(운반하다)’임을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이 ‘translate’라는 용어에 내재하는 다양한 이동의 양상에 주목하는 입장에서 협의의 ‘번역’의 상위 개념으로서 ‘이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sup>6)</sup>

본 논문이 주목하는 ‘translation’은, 협의의 ‘번역’이나 ‘번안’뿐 아니라,

6) 물론, ‘번역’을 텍스트나 장르 간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인식행위에 반드시 수반되는 과정으로 규정하는 사카이의 논의에서처럼, 최근 ‘번역’의 의미범주가 갱신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酒井直樹, 『日本思想という問題—翻譯と主体』, 岩波書店, 1997) 그러나 본 논문의 경우, 기본적으로 ‘번역’의 의미내용을 인식론적 논의로까지 확장시키려는 것은 아니다. 본 논문은 그런 의미에서 ‘translation’의 인식론 보다는 ‘translation’의 역동성에 주목하려는 시도이다. 또한, 본 논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동’이라는 용어가 애초에 제국일본과 식민지조선에서의 아일랜드 연극에 대한 필자의 연구(본 논문은 그 일부를 기초로 하고 있다)에서 고안된 것임을 아울러 밝혀둔다. 연극이라는 장르의 특성상, 언어간의 이동을 필수조건으로 하지 않는 재배치로서의 ‘translation’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 본 연구에서 ‘translation’의 번역어로서 ‘이동’의 유효성을 사고하게 된 계기이다.

어느 하나의 ‘원작’에 소급되지 않는 지(知)나 현상이 시간과 장소를 달리하여 나타나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예를 들면, 뒤에서 언급하게 되는 아놀드의 『켈트문학연구』와 같은 저작의 경우, 일본에 그것의 ‘번역’이라 칭할 수 있는 것이 존재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일본에서 아놀드의 켈트론이 다양한 텍스트에서 반복 재생산 될 때, 이러한 현상을 아놀드의 켈트론이 일본에 옮겨짐으로써(그것이 언어 간의 이동을 수반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새로운 의미를 생산한 예로서 파악할 수는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이 ‘이동’이라는 용어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처럼 재배치(relocation)로서의 ‘translation’이며, 재배치의 결과 필연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의미의 ‘이동’, 즉 변용(transformation)과 불가분의 관계에 위치하는 것으로서의 ‘translation’이다. 본 논문은 이처럼 협의의 ‘번역’이나 ‘번안’이라는 틀에서 이탈하는 예들까지를 ‘이동’의 예로서 포섭함으로써, 아일랜드(문학)에 대한 분석의 틀을 갱신하고자 하는 시도이기도 하다.

## II. 『켈트문학연구』와 켈트의 전유

일찍이 일본의 경제학자 우에노(上野格)는 「일본에서의 아일랜드학의 역사」에서, “조선식민지 통치의 최중요 자료로서의 아일랜드”에 대한 접근은, 아일랜드에 대한 당시 일본의 시선을 결정짓는 요소이며, 것처럼 “아일랜드 문제를 논하면서 끊임없이 일본의 경우를 생각하는” 것이, 분야를 막론하고 “전전(戰前)의 논술에 공통된 자세”였음을 지적한 바 있다.<sup>7)</sup> 이처럼 피지배자로서의 아일랜드가 제국일본의 식민지 통치의 중요 자료였음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그와는 또 다른 벡터의 관심이 아일랜드로 향하고 있었다는 사실에도 우리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그러한 또 다른 관심의 양상을, 일본에 ‘이동’된 켈트론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7) 上野格, 「日本におけるアイルランド學の歴史」, 『思想』 617号, 岩波書店, 1975. 11, 127~129쪽.

즉, ‘우리 일본인’의 자화상 구축과 관련하여 아일랜드라는 타자가 어떻게 기능하였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아일랜드가 단순한 피자배자 이상의 의미를 지닌 타자였음을 분명히 제시하려는 것이다.

‘우리 일본인’이나 ‘우리 조선인’이라는 국민적 혹은 민족적 동일성이 역사를 넘어 존재했던 것이 아니며, 근대라는 시점에서 ‘그들’과의 사이의, 사카이(酒井直樹)의 표현을 빌자면, ‘대-형상화(對形象化)’에 의해 형성되어진 것임은 널리 알려져 있다.<sup>8)</sup> 또한 이때 ‘그들’로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다름 아닌 ‘서양’이라는 것에도 재고의 여지는 없다. 그러나, 후쿠마(福間良明)가 언급했듯이, “일본이라는 자기(自己)는 ‘서양’이라는 타자와 동시에, ‘변경’이라는 타자와의 대조로 표상되어”<sup>9)</sup> 왔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여기에서 ‘변경’이라 함은, 근대문명의 위계구조에서 하위에 위치하는 것으로 인식되며, 일본이라는 자화상을 그리는 데 있어서 타자로서 표상된 공간으로, 구체적으로는 ‘아이누’, ‘오кина와’, ‘조선’, ‘만주’, ‘남방’ 등의 명칭으로 불려져 온 공간들을 이른다.<sup>10)</sup> 한 편으로는 ‘서양’과 마주하며, 또 한 편으로는 이러한 ‘변경’과의 유사와 차이에 의거함으로써, 일본의 내셔널리티가 직조되었음을 후쿠마의 연구는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처럼 ‘우리 일본인’에 대치되는 ‘서양’과 ‘변경’이라는 두 부류의 ‘그들’을 상정할 때, 아일랜드는 어디에 위치하는 타자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일랜드는 어느 쪽도 아닐 수 있으며, 동시에 어느 쪽에나 속할 수 있는, 그야말로 모순된 타자였다고 할 수 있다. 대영제국의 내부식민지였던 아일랜드는, 일반적인 지리감각으로는 일본에 있어서의 ‘서양’이다. 그러나, 만약 사카이가 지적하듯이, ‘서양’이라는 것의 내부에 전근대적인 ‘서양’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면,<sup>11)</sup> 아일랜드는 ‘서양’에 편입될 자

8) 酒井直樹, 앞의 책, 52쪽.

9) 福間良明, 『辺境に映る日本—ナショナル리티の融解と再構築』, 柏書房, 2003, 15쪽.

10) 위의 책, 24쪽.

11) 사카이는, 두 개의 대조적인 영역, 즉 ‘근대적’ 서양과 ‘전근대적’ 비서양이 구별되고 정위(定位)되는 과정에서, 조합상으로는 가능해야 하는 ‘전근대적’인 서양과 ‘근대적’인 비서양이라는 가능성이 배제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酒井直樹, 『死産される日本』

격을 갖지 못 할 것이다. 한 편, 당시 아일랜드의 문학은, 신생의 근대문학으로서 세계의 주목을 받는 동시에, 그 특징은 ‘전근대적’이며, ‘반근대적’인 것(혹은, ‘서양’이라는 ‘보편’에 대치되는 ‘특수’)로 설명되고 있었다. 이같은 의미에서, 특히 이 글의 관심사인 문학의 분야에서, 아일랜드라는 존재는 간단히 어느 한 쪽에 귀속시킬 수 있는 ‘그들’이 아니었던 것이다. 이처럼 양면적인 타자성이야말로, 아일랜드가 그 동안 ‘우리 일본인’의 구축과 관련된 연구에서 ‘서양’으로서도 ‘변경’으로서도 그다지 주목받지 못 했던 하나의 원인이었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일본에서의 상황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위 ‘서양’의 내부에서 아일랜드인, 보다 넓게는 ‘켈트’에게 주어진 역할이 무엇이었는지를 이해하는 준비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아놀드의 『켈트문학연구』(1867)를 중심으로 이 문제를 고찰하기로 한다. 아놀드의 저작은 근대 이후 ‘켈트’라는 이름이 연상시키는 수많은 이미지들의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텍스트이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출판되었을 당시의 반응은 그리 크지 않았다. 켈트나 켈트의 옹호자들조차도 아놀드를 단지 “친절하고, 순진하고, 약간 어리석은, 끊임없이 등장하는, 대영제국의 개혁주의자의 하나로서 보고 있었다”<sup>12)</sup>고 한다. 즉, 아놀드의 켈트론은 강경책이 아닌 회유책으로 아일랜드를 포섭하려는 식민자 측의 공허한 이상론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이처럼 정치적 의도가 노골적인 저작이었던 만큼, 19세기 말에 켈트 부흥의 시대가 도래하기까지, 그에 대한 학문적 타당성이 제대로 논의되는 일조차 없었다.

아놀드의 정치적 의도는 책의 서문과 마지막 부분에 여실히 드러나는데, 그것은 켈트의 문학적 재능을 찬미함으로써, 켈트에게 만족을 줌과 동시에, 잉글랜드인으로 하여금 켈트를 인정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놀드는 잉글랜드인 속에 켈트의 피가 흐르고 있으며, 잉글랜드인이 스스로 자각하지 못

語・日本人－「日本」の歴史－地理的配置』, 新曜社, 1996, 4~5쪽.

12) John V. Kelleher, “Matthew Arnold and the Celtic Revival”, *Perspectives of Criticism*, Harry Levin, ed.,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50, p. 199.



하고 있을 뿐, 그들이 의외로 켈트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한다. 아놀드에 따르면 잉글랜드인은 역사상 3종의 ‘인종’의 기질을 갖게 되었는데, 그 기본은 앵글로 색슨의 선조인 게르만이며, 거기에 켈트와 노르만의 기질이 더해졌다. 또한, 잉글랜드인의 속물성은 게르만의 기질에 기인하는 것인데, 이는 켈트의 기질에 의해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놀드가 개량 대상으로 생각한 것은 잉글랜드인의 속물성만은 아니었다. 그는 켈트 스스로가 변화함으로써 비로소 그들도 제국의 좋은 구성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일랜드 독립을 위한 비밀 결사 페니안 동맹(Fenian Brotherhood) 등, 동시대 아일랜드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 움직임을, 그릇되고 무모한 것으로 평가절하 하면서,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옥스퍼드에 켈트학을 설립하고, 과학이라는 온화한 처치를 통해 아일랜드에 평화의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페니안주의의 창시자들을 비롯한 속물들에 대한, 우리의 천사와 같은 복수로 삼자”<sup>13)</sup>고 호소했다.

이처럼 『켈트문학연구』는 영국이 아일랜드 포섭의 효과적 전략을 강구할 수밖에 없었던 시기에 쓰인 텍스트이다. 여기에서 켈트는 말하자면 내부의 타자이며, 켈트의 찬미는 아일랜드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일랜드를 포섭하는 영국을 위해서 행해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 점은, 아놀드의 켈트론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고 알려져 있는 르낭의 『켈트민족의 시가』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른 점이 있다면, 르낭은 프랑스를 위해, 아놀드는 영국을 위해 켈트를 이야기했다는 것, 그리고 르낭은 켈트의 내부에 있는 자로서,<sup>14)</sup> 아놀드는 그 외부에 있는 자로서 켈트를 논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놀드의 켈트론이 르낭의 그것과 뚜렷이 구별되는 점은, 무엇보다도 당시의 ‘과학’, 특히 에스놀로지(ethnology)<sup>15)</sup>와의 관련에 있다. 아놀드

13) Matthew Arnold, *The Study of Celtic Literature*, London: Smith, Elder, & Co., 1891, p. 152.

14) 오늘날 프랑스에서 ‘켈트’의 문화가 유일하게 남아있는 곳이 북서부의 브르타뉴(Bretagne) 지역인데, 르낭은 이 곳 브르타뉴 출신이다.

15) 현재 ‘ethnology’는 보통 ‘민족학’으로 번역되며, 문화면에 관한 연구에 한정하여 쓰이고 있다. 그러나 아놀드의 동시대 잉글랜드에서의 ‘ethnology’는 오히려 형질인류학적인 성격이 매우 강했으며, 점차 문화인류학적인 연구를 새로운 영역으로 포섭해 가는 중

는 켈트에 대한 탐구가 신체적 특징과 같은 “외면적 증거” 뿐 아니라 “내면적 증거”를 필요로 한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문학 연구를 그 “내면적 증거”로서 제시하고 있다.<sup>16)</sup> 아놀드가 빠르게 인식했듯이, 당시 에스놀로지를 지탱하는 두 개의 기둥은 언어학과 생리학이었는데, 아놀드는 거기에 문학이라는 소재를 통해 참여하려 한 것이다. 실제로 당시의 에스놀로지에는, 아놀드로 하여금 이러한 포부를 갖게 할 만한 동향이 있었다. 1854년에 출판되어, 『켈트문학연구』가 출판된 시점에서 이미 9쇄를 찍었을 정도로 널리 유통되고 있던 『인류의 제유형』에서도, “신체의 역사”나 “신체의 특징” 뿐 아니라 “정신의 역사”나 “모럴의 특징”까지를 탐구하는 것이 에스놀로지의 새로운 과제로서 제창되고 있었다.<sup>17)</sup> 아놀드의 연구는, 이러한 요구에 응답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켈트문학연구』는 문학 연구라는 표제를 내세우면서도 그 내실에 있어서는 에스놀로지로서 스스로를 규정짓는 텍스트였던 것이다.

그에 걸맞게 『켈트문학연구』의 많은 지면이, 언어학과 생리학에서의 성과를 원용하여 앵글로 색슨과 켈트의 친연성(親連性)을 주장하는데 쓰이고 있다. 아놀드가 이 둘의 친연성을 주장한 것은, 지금의 우리에게도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당시의 켈트에 대한 시선을 고려한다면, 그의 주장이 당시로서는 일반적인 것이 아니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잉글랜드에서의 켈트의 이미지는 18세기에 “두려운 야만인”에서 “고귀한 야만인”으로의 변용을 겪게 되며, 19세기에 이르러서는 조금 더 온화한 것으로 변모하게 된다.<sup>18)</sup> 그러나, “고귀한 야만인”이라 해도, 그것이 여전히 “야만인”임에는 변함이 없다. 많은 선행 연구가 지적하듯이, 아놀드의 시대

---

이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를 민족학이라 번역하지 않고 ‘에스놀로지’라 칭하여, 현재의 ‘민족학’과의 혼동을 피하기로 한다.

16) *ibid.* p. 75

17) Josiah C. Nott & George R. Gliddon, eds., *Types of Mankind*, 1854, Bristol: Thoemmers Press, 2002, p. 49.

18) Murray G. H. Pittock, *Celtic Identity and British Image*,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99, p. 61.

에 켈트, 보다 정확하게는 아일랜드인의 민족적 열등함은 이마가 뒤로 후퇴하고 턱이 앞으로 튀어 나온, 안면각(顔面角)이 작은 얼굴, 즉 원숭이와 같은 얼굴로 표상되고 있었다. 켈트는 앵글로 색슨보다는 니그로에 가깝다고 생각되었으며, 켈트의 다른 이름은 ‘검은 켈트’ 혹은 그와 정반대의 레토릭인 ‘하얀 니그로’, ‘하얀 침팬지’였다. 이러한 시대에 아놀드는 잉글랜드인의 내부에 켈트가 살아있다고 단언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아놀드는 이러한 켈트를 어떠한 민족으로 규정하였는가. 그의 켈트론이 르낭의 영향하에 있었음은 이미 지적하였는데, 아놀드가 만들어 낸 켈트상도, 그 골자에 있어서는 르낭을 답습한 것이었다. 르낭은 켈트를 특징 짓는 무엇보다도 현저한 특질로서, 극도의 섬세함과 상상력을 들면서, 켈트를 여성화한 바 있다. 이를 이어 받아, 아놀드가 켈트의 본성을 대표하는 특질로 내세운 것은, 감상, 감정(sentiment)이었다. “센티멘탈, 언제나 사실의 전제에 반항하려 하는 것”,<sup>19)</sup> 아놀드가 마르탱(Henry Martin)의 『프랑스의 역사』에서 인용한 이 문구가, 훗날 아놀드의 켈트론에서 가장 빈번히 인용되게 되는 부분이다.

아놀드가 이같은 감상의 민족으로서의 켈트와 대치시킨 것은 게르만 민족이다. 그에 따르면 게르만은 성실하고 근면하여, ‘과학’을 통해 물질문명과 정치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는 반면, 감상의 켈트에게 그러한 것은 불가능하다. 감상적인 기질이 “켈트의 위험성, 그리고 그들의 반복되는 실패”의 원인이며, 성공을 위한 세 가지 요소, 즉 균형(balance)과 중용(measure)과 인내(patience)를 이제껏 켈트가 손에 넣은 적은 없었다는 것이다.<sup>20)</sup> 이처럼, 근대 문명의 근간인 이성의 결핍으로서의 감상을 짊어 진 켈트에게는, 현실에서의 성공이 불가능함으로 하여 발달하게 된 그들의 상상과 환상을 통해, 문학이라는 영역에 한하여 재능을 발휘하는 것이 허락되었다. 이러한 켈트에게, ‘과학’을 통해 자신들의 문화를 스스로 논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그들의 위치는 ‘과학’의 주체가 아닌, ‘과학’의 객체 / 대상이라는 영역에 한정된

19) Arnold, op. cit., p. 85.

20) ibid., pp. 86~87.

다. 켈트가 잉글랜드의 문학, 특히 시에 남긴 유산으로서, 아놀드는 세 가지를 들고 있다. 문체(style), 우울(melancholy), 자연의 마술(natural magic)이 그것이다. 이러한 켈트의 특질이 있음으로 해서 잉글랜드의 문학은 켈트의 특질을 갖지 못하는 민족(예를 들면, 순수 게르만 민족)의 문학보다 매력적인 것이 된다. 결국, 잉글랜드인은 게르만과 켈트의 장점을 동시에 소유한다는, 행복한 결말을 향유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켈트문학연구』는, 문학에서의 켈트의 재능을 찬미한 후에, 결과적으로는 그것을 포섭한 잉글랜드 문학에의 찬미로 향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켈트의 문학적 재능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자 하는, 논자 아놀드의 위치이다. 아놀드는 켈트를 문학적 정서라는 영역에 가두면서, ‘과학’의 세계에서의 켈트의 무능함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과학’에서의 무능함 때문에 스스로의 문화를 논할 힘을 지니지 못하는 켈트를 대신하여, 켈트의 문학적 재능을 논한다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그가 이러한 ‘과학’의 대상으로서 인식한 것이, 결코 켈트의 현재나 미래가 아니었다는 점이다. 아놀드는 그 자신이나 독자의 관심이 어디까지나 “켈트의 특질이라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무엇을 이루어 왔는가”라는 과거의 문제에 한정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켈트에 대한 관심이 “근대 정치의 문제로서, 켈트의 특질이 미래에 있어서 무엇이며, 무엇을 이룰 것인가” 하는 문제로 향하는 것을 우려했다<sup>21)</sup>.

그러나 아놀드의 이러한 경계에도 불구하고, 켈트론과 정치적 문제의 연계는, 문화적 내셔널리즘의 열풍에 휩싸인 훗날의 아일랜드에서 보기 좋게 실현되고 만다. 문학의 분야에서 본격적인 켈트 부흥이 일어난 것은, 19세기 말, 아놀드 사후의 일이다. 아놀드가 예상도 하지 못 했을 법한 크기의 관심이 켈트에게로 향했을 때, 스스로 그러한 켈트의 계승자를 자처한 것이, 바로 예이츠(W. B. Yeats)였다. 예이츠가 *Fairy and Folk Tales of the Irish Peasantry*(1888)나 *The Celtic Twilight*(1893)에서 제시한 ‘환상’과 ‘상상’

21) Ibid., p. 13.

의 민족으로서의 켈트는, 아놀드에 의한 켈트상에 보기 좋게 부합하는 것이었다.

켈트론에 대한 예이츠의 반응에 대해 여기에서 본격적으로 고찰할 여유는 없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 가지 짚어 두고 싶은 것은, 예이츠가 「문학에서의 켈트적 요소」(1898)를 발표한 시점에서, “우리는 아마도 르낭이나 아놀드의 주장을 약간 수정(re-state)할 필요가 있다”<sup>22)</sup>며, 기존의 켈트론에 의의를 제기함과 동시에 켈트를 논할 권리를 “우리”에게로 탈환하고자 하였다는 사실이다. 여기에서 예이츠는 아놀드가 “켈트의”, “켈트적인”이라 형용했던 모든 특징을, “고대의”, “원시의”라는 형용사로 수정하고 있다.<sup>23)</sup> 일견, 당시의 켈트주의(Celticism)가 켈트에게 부여한 특권을 포기하는 선언이며, 목적 없는 자기 프리미티브화로마저 비취지는 이러한 수정은, 사실 신비학(occultism)의 이미지가 강한 예이츠 역시 의외로 당시의 ‘과학’에 민감했다는 사정과 관련되어 있다.<sup>24)</sup> 그러나 이러한 수정이 ‘과학’ 측의 비판을 우려한 소극적인 것이었다고 할지라도, 켈트 부흥의 주역이라 할 만한 그가 켈트를 특권시 하는 켈트주의를 스스로 부정했다는 것의 의미는 크다. 그와 더불어,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예이츠가, 자칭 켈트가, 스스로 켈트를 논했다는 사실이다. 예이츠가 아놀드를 논박한 것은, 이러한 의미에서, 즉 켈트가 외부자에 의해 논해지는 것을 부정하고, 스스로를 논할 권리를 탈환하고자 했다는 의미에서, 기억될 만한 사건인 것이다.

22) William Butler Yeats, “The Celtic Element in Literature”, *Essays and Introductions*, New York: Macmillan, 1961, p. 174.

23) *ibid.*, pp. 184~185.

24) 예이츠가 이러한 수정을 감행해야 했던 동기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설이 있으나, 그 직접적인 원인으로 가장 유력시 되는 것은, 1897년 발표된 Andrew Lang of “The Celtic Renaissance”가 예이츠에 앞서서, 시나 미신에서의 소위 ‘켈트적’인 것이 ‘초기의 인류’의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는 사실이다. 참고로, 아놀드의 시대와는 달리, 아일랜드 문예부흥의 시기에는, 애국적 꿈에 젖어 켈트 찬미를 멈추지 않는 켈트주의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과학적, 객관적 켈트 연구를 표방하는 ‘켈트학(Celtology)’이 융성하였다. 아일랜드 문예부흥의 작가들은, 이제 대중적인 켈트주의에 의존하는 것만으로는 시대에 뒤떨어지게 되는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이다.

### Ⅲ. 켈트론의 ‘이동’과 일본민족의 자화상

20세기 초 일본에서도 예이츠로 대표되는 아일랜드 문예부흥(켈트 부흥)이 주목받게 되는데, 이는 켈트에 대한 담론의 활발한 재생산을 수반하고 있었다. 제국일본에서 반복된 켈트 담론의 양상에 대해서는, 현재 충분한 선행 연구가 존재한다고는 할 수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치카와(市川勇)의 『아일랜드의 문학』에는, 간략하게나마 그 초기의 양상에 대한 언급이 있어 도움이 된다.<sup>25)</sup> 이치카와에 따르면, 예이츠론이라 할 만한 논문으로서 일본에서 가장 빨리 발표된 것은 구리야가와(厨川)의 글이었는데, 이것이 아마도 일본에서 아놀드의 켈트론을 소개한 것으로서도 가장 빠른 부류에 속하는 것이라 추측된다. 이치카와가 언급한 네 가지를 포함해, 문학관계에서 켈트의 기질에 대한 언급이 확인된 문헌을 연대순으로 배열하면 다음과 같다.

- 구리야가와 학송(厨川白松), 「영국현대의 두 시인」, 『帝國文學』, 1904년 2~4월.
- 노구치 요네지로(野口米次郎), 「서정시인으로서의 예이츠」, 『太陽』, 1907년 10월.
- 가타가미 노보루(片上伸), 「예이츠론」, 『早稻田文學』, 1911년 5월.
- 아쿠타가와 류노스케(芥川龍之介), 「켈트의 박명에서」, 제3차 『新思潮』, 1914년 4월.
- 호소다 교호(細田枯萍), 「신켈트문학」, 『英語青年』, 1915년 6~8월.
- 산구 마코토(山宮充), 「애란의 제시인」, 『早稻田文學』, 1922년 7월.
- 사토 키요시(佐藤清), 『애란문학연구』, 研究社, 1922년.
- 우치타 세이치(内多精一), 「각성한 애란인—애란문예부흥의 배경」, 『英語青年』, 1924년 3~4월.
- 기쿠치 칸(菊池寛)·아마모토 슈지(山本修二), 『영국애란 근대극정수』, 新潮社, 1925년.
- 노구치 요네지로, 『애란정조』, 第一書房, 1926년.

25) 市川勇, 『アイランドの文學』, 成美堂, 1987, 206~208쪽.

지면 관계상, 개별 문헌에 대해 상세히 다룰 여유는 없으나, 이들 문헌에 등장하는 켈트에 대한 언급이 거의 충실히 아놀드의 켈트론을 재생산하고 있음은 명백하다. 그것은, 예를 들면 구리아가와와 같이 아놀드를 직접 인용하면서 설명한 경우나, 산구의 글과 같이 아놀드를 본받아 켈트의 특질을 네 가지로 정리한 경우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르낭이나 아놀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는 경우에도, 거기에 등장하는 감정적이고, 상상을 즐기고, 민감하고, 경쾌하면서도 침울하다고 하는, 켈트를 특징짓는 제반 수식어들이, 아놀드나 르낭에 유래하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처럼 일본에서의 켈트 담론이 어디까지나 아놀드적인 켈트의 재현이었다고 한다면, 그 재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의 하나는, 예이츠의 켈트론의 부재라는 사실이다. 일본에서 켈트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거의 대부분의 경우 예이츠를 이야기하기 위함이었음을 고려하면, 예이츠가 시도한 ‘켈트적’인 것에서 ‘원시적’인 것으로의 수정이 주목받지 못했다는 상황은 더욱 의아하게 여겨진다.

그렇다면, 이렇게 예이츠의 켈트론이 부재함으로써 소거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 하나는 바로, 예이츠가 몸소 실천한 스스로를 논하는 ‘켈트’의 모습일 것이다. 이러한 켈트의 모습이 사라짐으로써 여전히 예이츠는 ‘문학’의 영역에, 그리고 아놀드는 ‘과학’의 영역에 위치하는 구도가 유지된다. 그것은 아놀드가 『켈트문학연구』에서 주장한 도식, 즉 논해지는 위치에는 ‘켈트’, 논하는 위치에는 ‘앵글로 색슨’이라는 도식이 존속하게 됨을 의미한다. 예이츠의 수정론이 사장됨으로써 잊혀지게 되는 두 번째 요소는, 그 수정에서 예이츠가 제기한 바 있는 켈트주의에 대한 의문일 것이다. 그 의문이 잊혀진다는 것은 곧, 아놀드류의 켈트적인 것에 대한 절대적인 긍정이 살아남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아놀드적인 켈트론의 반복은, 그것과 양립할 수 없는 예이츠의 켈트론이 실질적으로 무력화됨으로써 비로소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예이츠의 수정론이 주목받지 못하고 아놀드적인 켈트상이 살아남게 된 것을 의도적인 조작의 산물로서 이해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그것

이 의식적인 레벨에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집단적인 무의식이라 할 만한 것의 결과였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을 듯하다. 그러나 어느 쪽이었든지, 그 결과 일본에서 아일랜드 문학이 논해질 때, 다음과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었음은 확실하다. 즉, 켈트를 논하는 것과 ‘켈트적’인 특질의 전유가 동시에 가능한, 아놀드적인 입장을 일본인이 욕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우선 첫째로 켈트를 논하는 것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일본에서 켈트가 논해질 때, 아놀드의 ‘과학’의 대리인을 자처한 것은 물론 일본의 학자나 작가들이다. 예이츠라는 ‘켈트’를 논하면서, 논하는 주체로서 아놀드의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는 일본의 학자와 여전히 논해지는 위치에 머물 수밖에 없는 예이츠, 라는 구도가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가를, 예를 들면 다음의 가타카미의 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단지 그 불타는 듯한 눈이 그의 내심(內心)도 깊은 생활을 말하고 있다고 한다. (중략) 그의 깊은 내심 생활을 말하고 있는 눈에, 피곤한 기색이 있는 것은, 먼저 나의 마음을 끈다. 나는 이 눈의 의미를 풀어보고 싶다. 예이츠가 태어난 아일랜드라는 나라는, 켈트민족이 사는 나라이다. 켈트는 전반적으로 감정적인 민족으로, 상상력이 풍부하고, 종교심이 깊고, 민감하며, 화미(華美)를 사랑하고, 공상을 즐기는 민족이다. 때로는 경쾌하게 때로는 침울하게, 애환의 정에 움직이기 쉽다. 아일랜드의 농부는, 지금도 여전히 들이나 산이나 강이나 늪에 사는 마(魔)를 두려워한다. 켈트의 피에는 신비적인 감정이 흐르고 있다. 아일랜드에 전설이 많은 것도 그 때문이다. 아일랜드 문학의 부활은, 오로지 그 전설에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고자 하는 운동이라고 해도 좋다.<sup>26)</sup>

예이츠는 “불타는 듯한 눈”을 통해서, 아니면 시나 극을 통해서 “그의 깊은 내심 생활”을 말하고, 논자는 아놀드류의 켈트론에 의거하면서 예이츠의 눈이나 그의 문학의 의미를 풀어내려 한다. 여기에 묘사된 “피곤한 기

26) 片上伸, 「イエーツ論」, 『早稲田文學』 66号, 1911. 5, 2~3쪽.



색”의 눈을 한 에이츠가, 아놀드에게 의의를 제기하고 스스로 켈트에 대해 논하는 모습을 상상하기란 쉽지 않다. 그 눈의, 그 문학의 의미를 풀어내는 ‘과학’의 언어는, 과거에는 아놀드에게 허락되었던 것이며, 지금은 논자인 가타카미 자신에게 허락된 것이다.

그러면, 다음으로 ‘켈트적’인 것의 전유에 대한 문제로 옮겨 가 보자. ‘일본인’이 ‘켈트적’이라는 것은 애시당초 가능한 것인가. 원래 아놀드는, 켈트가 ‘우리’ 안에 살아있음을 ‘피’의 혼합을 근거로 주장하며, 앵글로 색슨과 켈트의 친연성을 제창하였다. 그러나 켈트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어 보이는 일본인에게도, 켈트와의 친연성을 말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피’를 매개하지 않는 새로운 친연성이라는 가능성이 남겨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한 가능성을 보여 주는 노구치의 글, 「서정시인으로서의 에이츠」의 일부를 조금 길지만 여기에 인용한다.

문학상의 애란토 부활(아이리쉬 리바이벌)은, 인종과 문학이라는 소연구 문제를 제공하였는데, (중략) 문학에서의 인종(레이스)의 인플루언스를 이야기하는 것은, 평이한 일이지는 하지만, 엄중한 의미에서는 논할 수 없는 것이다. 그 나라의 문학을 이루는 것은 반드시 그 나라의 순백한 피를 받은 자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이치는 없다는 것이 된다. 대영국에서 말하자면, 색슨의 혈통인 자여도, 켈트 중의 켈트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중간) 그렇게 보면 피 보다는 애트모스피어 쪽이, 유력하다는 것이 된다. 헤레디티의 힘은 미약한 것이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중략) 애란토인이 아니면, 켈틱 고대정신을 얻을 수 없다는 이치는 없다. 가까운 예가, 외국인인 한(인용자 주 : Lafcadio Hearn)은 일본을 이해하지 않았는가. (중략) 일본인인 나의 작품조차도, 애란토의 템퍼러먼트를 갖고 있다는 평을 받은 일조차 있는데, 나는 요즘에서야 약간 애란토 문학을 연구하고 있지만, 이런 평을 받은 시를 쓴 즈음에는, 조금도 애란토 문학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 했던 시절이다. 그러고 보면 인종과 문학이라는 문제는, 엄중한 의미에서는 박약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소위 켈틱 문학이라는 것도, 반드시 애란토인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논의가 되지 않을 수 없는데, (후략)<sup>27)</sup>

27) 野口米次郎, 「叙情詩人としてのエーツ」, 『太陽』 13卷 13号, 1907. 10, 136~137쪽.

외국인인 라프카디오 한이 “일본을 이해하였”듯이, 노구치도 또한 “애란토”를 이해하고 “애란토”적일 수 있다. “혈통”이나 “헤레디티”가 문학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약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켈트의 특질을 “혈통”이나 “인종”이라는 기준에서 분리시켜 버리기만 하면, ‘켈트적’ 특질의 전유는, ‘일본인’에게도 실현 불가능한 꿈이 아닌 것이다.

이처럼 ‘켈트적’인 특질이 켈트의 “전유물”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언뜻 보기에는 ‘켈트’에서 ‘원시’, ‘고대’로 향한 예이츠의 수정과 통하고 있는 것처럼도 보인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하는 것은, 노구치가 “켈틱 고대 정신”을 단순히 보편일반적인 “고대정신”의 일례로 파악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이다. 노구치는 “켈틱 고대정신”이나 “켈틱 문학”의 특수성을 인정한 연후에, 그것이 때로는 “혈통”이나 “인종”이라는 제약을 넘어서 실현될 수도 있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켈트’와 ‘일본인’은 보편이라는 가치를 통해 연결되어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특수성이 견지되지 않는다면, 즉 누구나 ‘아일랜드’적일 수 있는 것이라면, 노구치의 시가 ‘아일랜드’적이라는 평을 받았다고 한들, 그것은 그에게 아무 의미 없는 일일 것이다. “켈틱 문학”은 켈트의 전유물이어서는 안 되지만, 모두의 것이어서도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위의 글에서 “일본을 이해”한 외국인은 다름 아닌 라프카디오 한이지 않으면 안 된다. 영국의 군의였던 아일랜드인 아버지와 그리스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유소년기에는 더블린의 숙모의 손에 자란 한은 ‘켈트’의 자손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켈트를 논하는 것 뿐 아니라, ‘켈트적’ 특질의 전유까지가 가능해졌을 때, 거기에서 재현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아놀드적인 켈트 예의 시선에 다름 아니다. 켈트의 감성을 소유함과 동시에 켈트에게는 금지된 ‘과학’의 언어를 구사하여 켈트를 논할 권리까지를 향유하는 것. 이러한 켈트의 포섭이 일본에서도 행해진 것이다. 아놀드의 켈트론이 일본에서 반복 재생산 되었다는 현상은, 언뜻 보기에는 몹시 자연스러운 흐름일 수도 있다. 그러나 앞에서 간략하게나마 예이츠의 켈트론을 언급함으로써 밝혔듯이, 그것은 예이츠의 주장이 실질적으로 무력화됨으로써 가능했던 현상

이었다. 또한, 일본에서의 켈트 담론에는, ‘괴’의 매개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새로운 친연성을 내세움으로써, 켈트를 논할 권리뿐 아니라, ‘켈트적’일 수 있는 권리마저 주장하는 움직임이 존재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일본에 ‘이동’된 것은 아놀드의 켈트론만이 아니었다. 아놀드에 의해 행해진 켈트의 포섭 전략까지가, 고스란히 일본에 ‘이동’된 것이다.

그러나 일본에서 켈트를 포섭하는 것이 영국의 그것과 완전히 같은 양상을 보였을 리는 없다. 우선, ‘인종’이라는 히에라르키 속에서 ‘일본인’이 차지하는 위치가 그 양상과 관련되지 않을 수 없다. 켈트를 포함한 ‘백인’에 의해 열등시 되는 ‘일본인’에게 있어서, 켈트가 ‘검은 켈트’나 ‘하얀 니그로’라는 ‘열등 인종’으로서 인식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더구나 아일랜드 문예 부흥을 이끈, 자칭 ‘켈트인’ 앵글로 아이리쉬 작가들에게, 그러한 열등의 이미지가 중첩될 리는 없었다. 이미 인용한 바 있는 가타카미의 「예이츠론」은, 예이츠를 모델로 했다는 등장인물의 “아이리쉬 풍의 긴 얼굴”이 묘사된 소설의 인용으로 시작된다. “약간 패인 평평한 볼과 긴 턱이 모두 직선을 이루고 있었다”<sup>28)</sup>는 그 얼굴이, 원숭이를 연상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일본의 영문학 잡지에도 자주 등장하곤 했던 예이츠의 그 얼굴이야말로, 당시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아이리쉬 풍의” 얼굴이며 ‘켈트’의 얼굴이었음에 틀림없다.

이처럼, 일본에서 ‘열등’함의 표상인 원숭이와 같은 얼굴이 켈트의 것으로 인식되는 일은 없었지만, ‘과학’이나 ‘이성’의 결핍이라는 켈트의 ‘열등’함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켈트가 이른바 근대문명에서의 성공을 금지당한 ‘민족’이었다는 것은, ‘일본인’이 켈트에게, 구체적으로는 ‘아일랜드인’에게 스스로를 겹쳐보려 할 때, 용인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을 것이다. ‘잉글랜드인’의 근간에 ‘과학’과 ‘이성’의 주체인 게르만을 위치시킨 연후에, 켈트의 감상만을 포섭했던 아놀드와는 달리, ‘일본인’이 스스로를 켈트와 중첩시키는 것에는, 켈트의 결핍까지를 떠 안아야 할 위험이 뒤따랐기

28) 片上伸, 앞의 글, 1쪽.

때문이다. 뒤에서 보다 자세히 논하게 될 기쿠치 칸이, ‘일본인’과 ‘아일랜드인’의 공통점의 하나로서 이 두 민족이 이지(理知)보다는 직관(直觀)을 중시한다고 기술했을 때, 밑줄 친 부분과 같은 설명이 부연될 수밖에 없었던 것도 그런 연유에서이다.

세 번째로, 게르만 민족이 이지만능을 신양하여, 오늘날의 철학이나 과학을 건설한 것에 반해, 켈트 민족은 어디까지나 직관과 정서를 믿고 있다. 그리고 그 직관의 작용은, 때때로 이치가 도달할 수 없는 깊은 곳에까지 이르는 것이다. (중략) 번거로운 이치는 늘어놓을 것 없이, 바로 인성(人性)의 기미(機微)를 잡는 호흡은, 이 또한 애란극의 특질이며, 대륙의 여러나라나 영국의 근대극과는, 전혀 취향이 다른 점이다. 근래의 일본인은 이것저것 이해할 수 없는 이치를 늘어놓지만, 적어도 도쿠가와 시대 말까지는, 일본인에게 이치는 금물이었다. 이러한 점에도 양국의 공통점이 나타난다.<sup>29)</sup>

기쿠치가 ‘아일랜드인’에 중첩시키고 있는 ‘일본인’이란, “근래의 일본인”이 아닌, “도쿠가와 시대 말까지”의, 즉 전근대의 일본인이다. 이와 같이, ‘켈트적’ 특질을 현재의 ‘우리’가 아닌, 근대 이전의 ‘우리’에 관련짓는 것은, 현재의 ‘우리’가, 켈트에게 부여된 부정적 이미지, 즉 근대문명에서 소외된 민족이라는 이미지를 떠안는 것에 대한 방어기제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다시 말해서, 여전히 ‘우리’에게 “이치”가 “금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켈트의 특질을 소유할 수는 있어도 켈트를 논할 수는 없게 되는 것이다.

아놀드나 예이츠의 경우와 비교하면, 일본에서의 켈트론은 당시의 ‘과학’적 담론과 그다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인상을 주지는 않는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르낭의 프랑스나, 아놀드의 영국, 그리고 예이츠의 아일랜드의 경우와는 달리, 일본에서는 ‘켈트’라는 ‘민족’이, 자신들의 민족적 아이덴티티 창출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대상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29) 菊池寛・山本修二, 『英國愛蘭近代劇精髓』, 新朝社, 1925, 183쪽.

그러나, 일본에서 ‘켈트’라는 타자가 부상한 것이, 다름 아닌 일본인의 자화상이 차근차근 만들어지고 있던 시기였다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 일본 인류학의 출발은 188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 창시자라 일컬어지는 쓰보이(坪井正五郎)는, 연구 초기에 구미 연구자들에 의한 ‘일본인’ 연구에 반발하여, ‘인종’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해 강한 회의를 표명했다고 한다.<sup>30)</sup> 이러한 쓰보이조차, 그간의 회의를 버리고, ‘일본인’이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발화하게 되는 것이, 1906년 무렵이다. 그리고 쓰보이 사후, 도리이(鳥居龍藏)로 대표되는 다이쇼(大正)기의 인류학에서는, ‘우리’의 동일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학문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게 된다. 이와 같이 ‘일본민족’이라는 집단적 동일성이 구축되어 가는 시기에, ‘켈트’ 그리고 ‘아일랜드인’은 하나의 타자로서 일본에서 발견된 것이다.

이와 같은 ‘일본인’의 자화상 구축의 시대에, ‘켈트’라는 타자는 단순히 ‘우리’와 대립함으로써 ‘우리’의 자기동일성을 확보해 주는 역할 만을 담당 한 것은 아니었다. 르낭이나 아놀드에게 있어서 켈트는, 자신들의 상극에 배치되는 동시에, 한 편으로는 자신들에게 포섭됨으로써 자신들의 자화상의 일부를 구성해야 할 존재였다. 그리고 그들은, 이러한 켈트의 장점을 ‘우리’의 장점으로 논하는 것으로, 켈트를 전유할 수 없는 여타 민족에 대한 일종의 우월감마저도 향유할 수 있었다. 앞에서 확인했듯이, 일본에 ‘이동’된 켈트 담론도, ‘우리 일본인’의 자화상이 구축되는 시기에, 이러한 성격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었다. 켈트의 장점은 ‘우리 일본인’의 장점으로 포섭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이미 견고히 확립된 ‘우리 일본인’의 ‘민족성’이 켈트의 특질에 친근감을 품고, 그것을 환영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즉, 기쿠치 칸이 ‘아일랜드인’과 ‘일본인’의 ‘민족성’을 동일시 할 때, 그것은 반드시 “이치는 금물”인,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과거에는 “이치는 금물”이었던 ‘일본인’이, “이지만능”을 거부하고 “직관과 정서”를 중시하는 켈트와 조우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30) 이하, 인류학의 동향에 대해서는 坂野徹, 『帝國日本と人類學者—1884~1952年』, 頸草書房, 2005를 참조.

그보다는 오히려, “이지만능”을 거부하고 “직관과 정서”를 중시하는 켈트가 등장했을 때 비로소, “이치는 금물”인 ‘일본인’도 발견되었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인식일 것이다.

#### IV. ‘아일랜드’에의 욕망, 기쿠치 칸을 중심으로

켈트문화사 연구자인 쓰루오카(鶴岡真弓)는, 일찍이 작가 아쿠타가와 류노스케(芥川龍之介)와 아일랜드에 대해 논하면서, ‘아일랜드’라는 주제는 아쿠타가와라는 “작가의 ‘내면’에서 단성적으로 발생된 것이 결코 아니”며, “그 기원은 ‘아일랜드’를 대상화 한 다이쇼기의 정치적/문학적 ‘도식/제도’에 있었다”<sup>31)</sup>고 단언하였다. 이제껏 살펴본 일본의 켈트 담론 또한, ‘아일랜드’를 대상화 한 동시대의 “정치적/문학적 ‘도식/제도’”에 다름 아니다. 쓰루오카는 아쿠타가와를 비롯한 제3, 4차 신시초(新思潮)파의 아일랜드 문학에 대한 관심에 대해, 이것이 결코 서양문학의 자연스러운 수용의 예가 아니며, 일본인 스스로가 갖는 지배·피지배의 구도라는 제도/제약이 그들로 하여금 아일랜드 문학의 가치를 발견시킨 것이라 설명한다.<sup>32)</sup> 그러면서 쓰루오카가, “자신들 일본(인)과 아일랜드의 접합”을 “희곡(론) 안에서 선언”<sup>33)</sup>한 인물로서 규정한 것이 바로 아쿠타가와와 함께 신시초파의 중심인물이었던 기쿠치 칸이다.

기쿠치 칸은 앞서 인용한 『영국에란 근대극정수』라는 저서가 말해주듯이, 작가나 저널리스트로서 뿐만 아니라, 영문학, 그 중에서도 아일랜드 연극에 조예가 깊었던 인물이다. 그의 아일랜드 연극에 대한 관심은 연극론 뿐 아니라, 그 자신이 창작한 희곡에서도 드러나는데, 이 때문에 한국에서의 유치진이 그러했듯이, 일본의 비교문학 연구에서는 기쿠치 칸과 아일랜드

31) 鶴岡真弓, 「芥川龍之介の愛蘭土(アイルランド)」, 『正論』 314号, 1998. 10, 138쪽.

32) 위의 글, 141쪽.

33) 위의 글, 139쪽.

드 연극이라는 소재가 일찍부터 주목받아 왔다. 이처럼 아일랜드 연극의 ‘이동’에 관여한 인물로서 기쿠치 칸을 고찰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작품이 그레고리 부인(Lady Gregory)의 “The Gaol Gate”를 번안한 것으로 알려진 「폭도의 아들」이다.<sup>34)</sup>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여기에서 기쿠치는 아일랜드에서 일어난 사건을 ‘신영토’의 ‘토인’들이 일으킨 ‘폭동’으로 ‘이동’시키고 있는데, 이는 1915년 대만에서 발생한 대규모 무장봉기 ‘서래암(西來庵)사건’을 모델로 한 것이라 알려져 있다.

이처럼, 기쿠치가 아일랜드를 대만으로 ‘이동’시킨 「폭도의 아들」이라는 희곡의 존재는, 1920년대 이후 그가 ‘아일랜드’를 조선으로 ‘이동’시키는 데 앞장섰다는 사실과 더불어, ‘영국’의 위치에 선 기쿠치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인식할 수 있다. 즉, 그가 지배자, 억압자로서의 영국과 일본의 대응관계를 ‘문학적’으로나마 표명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그가 ‘일본(인)’과 ‘아일랜드(인)’의 동일화를 포기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정치적 위치에 있어서의 ‘영국’과의 접합을 표명함과 동시에, 그는 ‘민족성’에 있어서의 ‘아일랜드’와의 접합을 끝까지 욕망해 마지않았기 때문이다. 사실, 기쿠치는 이러한 의미에서, ‘아일랜드’와 마주하는 당시 ‘일본(인)’의 모순된 입지를 가장 적절히 대변/표상하는 인물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기쿠치의 이같은 모순을 직시하고자 할 때, 흥미로운 것은, 앞에서 언급한 『마음의 왕국』의 저자 이노세가, 연재 중에 이루어진 대답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하고 있는 점이다.

34) “The Gaol Gate”는 최정우의 번역 「옥문(獄門)」, 으로 『조선일보』(1933년 2월 8~14일)에 발표되었으며 그 전에 극예술연구회에 의해 상연(1932년 6월)되기도 하였다. “The Gaol Gate”에서 「폭도의 아들」로의 ‘이동’에 대해서는, 金杜蘭, 「『暴徒の子』が物語るもの—菊池寛とアイルランド文學の再考に向けて」, 日本比較文學會編, 『比較文學』 49号, 2007, 35~51쪽을, 「옥문」으로의 ‘이동’에 대해서는, 장원재, 「레이디 그레고리 <옥문 The Gaol Gate>의 한국 수용사 연구」, 서연호편, 『한국연극의 쟁점과 새로운 탐구2, 비교연극학』, 연극과인간, 2001, 265~298쪽 및, 金杜蘭, 「『ムーンライティング』は如何にして「夜間暴動」となったか—グレイグリー夫人作、崔挺宇譯「獄門」におけるひとつの「語譯」をめぐって」, 筑波大學比較・理論文學會編, 『文學研究論集』 24号, 2006, 31~50쪽을 참조.

기쿠치는 아일랜드 문학이 좋아서 연구했지만, 영국에게 있어서의 아일랜드가, 일본에게 있어서의 조선인 것이죠. 기쿠치는, 조선 사람들도 일본어로 좋은 문학을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카이쇼가 기쿠치 칸에게 있어서의 아일랜드이며, 기쿠치, 미도리코, 마카이쇼의 삼각관계는, 단순한 삼각관계가 아닌, 지금의 자신과 과거의(교토시절)의 자신, 그리고 미도리코의 삼각 관계인 것이 아닌가.<sup>35)</sup>

이노세는 교토 시절의 젊은날의 기쿠치는 ‘아일랜드’였으나, 문단의 거물이 된 “지금의” 기쿠치에게 있어서는 마카이쇼가 “과거의(교토시절의) 자신” 즉, ‘아일랜드’라고 정리하고 있다. 그렇다면, 마카이쇼라는 ‘아일랜드’와 대면하게 된 기쿠치는 어떤가. 여기에서 제시된 도식에 따르자면 “지금의” 기쿠치는 ‘영국’일 수밖에 없지만, 위의 인용에서 그 점은 명확히 처리되어 있지 않다. 이처럼 이노세의 도식에서, 지금의 기쿠치의 ‘영국’으로서의 명확한 분절화가 꺼려지는 것도 물론 문제가 되는 부분일 테지만, 여기에서는 그 보다도 과거의 기쿠치 칸이 마카이쇼라는 매개항을 거쳐서 ‘아일랜드’와 동일시되는 구도를 문제 삼으려 한다.

이노세가 과거의 기쿠치를 ‘아일랜드’로서 확산하는 하나의 근거는, 그가 참고로 한 가타야마(片山宏行)의 연구이다. 가타야마는 『기쿠치 칸의 항적(航跡)』에서, 기쿠치에게서 볼 수 있는 아일랜드 문학의 ‘투영’을 상세히 검토하고 있는데,<sup>36)</sup> 그에 따르면 기쿠치가 아일랜드 문학에 심취하게 된 것은 1913년 교토에 이주한 이후의 일이다. 그리고 이 또한 가타야마가 상세히 다루고 있는 점인데, 기쿠치의 교토 시절을 논할 때 그 중심에 위치할 만한 사건으로서, 결국에는 실패로 끝나고 말았던 교토문에 부흥운동을 들 수 있다. 동급생의 절도죄를 뒤집어쓰고 일고(一高)에서 퇴학당하게 되어, 친구들과 같이 동경제국대학에 진학하지 못 하고 홀로 교토제국대학 영문과에 진학하게 된 기쿠치는, 문예의 중심인 동경을 떠나 주변부인 교토에 위치하게

35) 猪瀬直樹・佐藤碧子, 「對談 生きている菊池寛」, 『文學界』 57卷 11号, 2003. 11, 225쪽.

36) 片山宏行, 『菊池寛の航跡—初期文學精神の展開』, 和泉書院, 1997. 그 중에서도 특히 「イギリス、アイルランド文學の投影」 부분을 참조.



된 상황을 역이용하여, 교토문에 부흥을 제창한다. 이 교토문에 부흥이라는 기획은, 그가 교토에서 눈 뜨게 된 아일랜드 문학과 무관한 것이 아니었다. 기쿠치가 당시 『중외일보(中外日報)』에 기고한, 교토문예의 부흥을 호소하는 글에는, 반드시 아일랜드 문예부흥이 그 ‘직접적인 선구’로서 등장한다. 기쿠치는 “교토를 더블린으로 만들자는 것은 우리들의 암호여도 좋다”며, 아일랜드 문예부흥 자체의, 교토로의 ‘이동’을 시도한다.

이처럼, 스스로 ‘아일랜드’의 재현을 꿈꾸었다는 기쿠치의 경력과, 이 교토 시절부터 이미 나타나는 ‘일본인’과 ‘아일랜드인’의 ‘민족성’을 동일시하는 그의 태도(참고로, 『영국에란 근대극정수』는 그의 교토제국대학 졸업논문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로 인해서, ‘기쿠치=아일랜드’라는 도식이, 적어도 교토 시절이라는 “과거”에 있어서는 모순 없이 성립한다는 인식이 가능한 것이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이 교토문에 부흥운동을 둘러싼 기쿠치의 발언을 주의 깊게 재고한다면, 그러한 인식에 수정을 가하지 않을 수 없음을 인식하게 된다.

그를 위해서는 우선, 기쿠치가 교토라는 주변에 어떠한 가치를 발견하고자 했는가에 대해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명확히 드러내 주는 것이, 게이쥬쓰자(芸術座)의 교토 공연을 환영하는 취지로 쓴 글, 「게이쥬쓰자를 맞이한다」(『中外日報』1914년 4월 26일)의 다음과 같은 부분이다.

예술, 특히 극으로 본 교토는 몽매미개의 야만지이다. 아름다운 와카슈가부키(若衆歌舞伎)를 길러낸 가부키의 요람 교토는, 이제는 중세의 예루살렘과 같이 극도(劇道)에 있어 이단자의 손에 떨어져 있다. 에비스야자(夷谷座)나 교토자(京都座)에서 우매한 희극에 대해 관중이 내는 썩 웃음소리는 교토의 문명에 대한 하나의 조소이다. (중략) 나는 이 우매하고도 무지한 교토의 극단에 대해 수 차의 십자군(크루세이다)를 원해 마지 않는다.<sup>37)</sup>

가부키의 요람이었던 교토는 과거의 교토이며, 현재의 교토 극계는 “몽매미개의 야만지”에 지나지 않는다. 이같은 교토를 예술적으로 각성시키는

37) 菊池寛, 「芸術座を迎ふ」, 『菊池寛全集22』, 高松市菊池寛記念館, 1995, 40~41쪽.

것은, 기독교도가 “이단자의 손에 떨어”진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해 이슬람교도를 토벌하고자 했던 것과 같이, “문명”의 사명에 다름 아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기쿠치가 본 교토의 가치라는 것은, 그것이 “문명”의 과거를 지닌 “야만지”라는 점 뿐이다. 가부키 발생의 토지이면서, 이제는 “야만지”로 전락하고 만 교토는, 유럽문학의 원천이라 평해지는, 아일랜드라는 “야만지”를 그 모범으로 하는 기쿠치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무대였던 셈이다. 교토에서 ‘아일랜드’를 재현하기 위해서는, 교토의 “야만지”화가 선행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어떠한 결실도 맺지 못한 이 부흥운동을 접으면서, 기쿠치는, 교토의 주민에게 “현대극 따위를 논하는 것은 생蠻人(生蠻人, 인용주: 대만의 고사족(高砂族)을 이르는 당시의 차별적 용어)에게 입헌사상을 논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장소착오(아나크로니즘)이라는 말을 남긴다. 이로서 한 때는 그에게 희망을 주었던 “야만지” 교토는, “문명”화 될 수 없는 “야만지”로서 낙인찍히고 마는 것이다.

여기에서 또 하나 짚어 두어야 할 점은, 이 운동의 과정에서 기쿠치가 스스로를 이 “야만지”의 내부에 위치시키는 일은 없었다는 것이다. 그는 「교토예술을 위하여」(『중외일보』 1914년 5월 8일)에서, 교토에는 “문학적 재료”와 “문학적 정서”는 있으며, 이를 “예술의 형식에 담을 만한 사람”이 없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덧붙이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우리가 직접 교토예술의 영광된 창조자가 되려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그러한 자격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는 산파의 역할을 맡아 하고 싶습니다. 교토문학은 (중략) 외국인의 손으로가 아닌, (중략) 진정한 교토아의 팔에 의해 건설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사명은 교토라는 문학적 불모지를 개척해서 교토에서 태어난 천재로 하여금 마음껏 창조의 가래질을 할 수 있도록 문학적 대경지(大耕地)를 만드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sup>38)</sup>

38) 위의 책, 43쪽.

기쿠치는 “불모지”를 경작/문화(culture) 가능한 땅으로 변모시키는 것까지를, 자신의 사명으로 여기고 있다. 교토예술의 창조가 그에게 ‘아일랜드’의 재현을 의미한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볼 수 있는 “산과”로서의 자기인식은, ‘아일랜드’라는 것에 대하여 그가 서 있는 입지를 여실히 드러내 주는 것이다. 그는 이 시점에서 이미, ‘아일랜드’가 자신이 설 위치가 아니라는 것을 자각하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교토를 “아만지” 혹은 개척되어야 할 ‘처녀지’로 규정하는 것, 그리고 문명화, 영토화의 비유를 통해 문예부흥의 “사명”을 논하는 것은, 기쿠치가 아일랜드 문예부흥에서의 중심과 주변, 혹은 지배와 피지배, 억압과 저항의 관계성에 충분히 의식적이었음을 말해 준다. 그것은 즉, 아일랜드 문학과 조우했다는 교토 시절에 이미, 기쿠치가 ‘영국’으로서의 자각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훗날 그가 보여준 모습들, 예를 들면 「폭도의 아들」에서 아일랜드를 대만을 모델로 한 ‘신영토’로 ‘이동’하였던 것이나, ‘애란문학’을 ‘조선문학’으로 ‘이동’하려 했던 것이, 기쿠치의 ‘영국’으로의 변모를 나타내는 사건일 수는 없다. 그것은 단지, 그가 ‘아일랜드’의 번역어로서 ‘교토’가 아닌, 그보다 더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대만’이나 ‘조선’을 택함으로써, 그 자신의 ‘아일랜드’의 영토를, 제국일본의 영토와 마찬가지로 확장시켰음을 의미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과거의 기쿠치=아일랜드’, ‘지금의 기쿠치=영국’이라는 이노세류의 도식, 혹은 그러한 도식의 형성과 유포에 관련된 기쿠치에 대한 일반적 시선은, 일본의 아일랜드에 대한 바른 이해를 근본적인 면에서 저해하는 요소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아일랜드 문학과 조우한 기쿠치가, 그 결과 영국과 아일랜드의 문제, 일본과 조선의 문제에 눈을 뜨고 ‘영국’으로서의 자신을 의식하게 된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쓰루오카가 간결하고도 정확하게 짚어 주었듯이, 애초에 “일본인에 의한 아일랜드의 문학적 소유는, 조선의 영토화라는 사상과 동일한 투시도법 위에 놓여 있었”<sup>39)</sup>던 것이다.

39) 鶴岡眞弓, 앞의 글, 143쪽.

## V. ‘아일랜드’의 재현, 조선청년에게 위탁된 꿈

희곡 「폭도의 아들」이 아일랜드와 관련해 기쿠치가 작가로서 보여준 하나의 응답이었다면, 저널리스트로서 혹은 문단의 거장으로서의 그것을 대표하는 것이 1924년 9월 『文藝春秋』에 게재된 「조선문학의 희망」이라는 글이다. 이 글은 바로 다음 달인 10월, 『조선문단』 지상에 ‘이동’되는데, 다음은 그 ‘이동’된 전문이다.

나는 조선청년의 문예열이 왕성한데는 놀나지 않을 수 없다. 자발적인지 혹은 타동적인지는 모르지만은 특히 일본문학에 흥미를 가지는 것을 보니 우리 일본작가들은 깃머할 만한 일이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괴로움을 받는 조선청년이 가장 자유스러운 문단에 대하여 야심을 품고 희망을 가지는 것은 우리들의 충심(衷心)으로 바라는 바이다. 문단에서만은 국경적 편견도 인종적 차별도 없을 것이다. 제씨는 일본문학의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는 일본문학을 졸업하고 새로운 조선문학을 수립하여다구.

애란인이 영어를 가지고 새로운 애란문학을 니르키여 영문학을 압도한 것과 갖치 되기를 바라는 것이요 제씨도 그러한 각오가 잇을 것이다. 만혼 민족운동의 선구자는 문예운동이다. 신조선을 세우는 선구도 새로운 조선문학이 아니면 안 될 것이다. (2행 삭제) 그러한 의미하에 조선서 새로운 문학이 나와 잠자는 일본문학에 자극(刺激)을 주는 시대가 올 것은 나쁜의 공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sup>40)</sup>

『조선문단』으로 이 글을 ‘이동’하면서, 방인근은 기쿠치의 “「조선문학의 희망」이란 논문을 대강 적어 보겠다”고 하며 인용을 시작한다. 그렇다면, 이 글은 어떠한 의미에서 “대강”이었던 것일까. 기쿠치의 원문을 전문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문예강좌’의 회원모집을 하고, 가장 놀란 것은, 조선 청년 사이에 문예열이 왕성한 것이다. 조선청년이 자발적으로인지 아니면 타동적으로인지, 일본

40) 春海, 「해외문예소식－菊地寛씨의 조선문학평」, 『조선문단』 2호, 1924. 10, 77쪽.

어를 배우게 됨으로써, 일본문학에 흥미를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동시에 우리 작가의 기쁨이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핍박받고 있는 조선 청년이, 가장 자유로운 문단에 대하여, 야심을 갖고 희망을 품는 것은, 우리가 진심으로 희망하는 바이다. 문단에 만큰은 국경적 편견도 인종적 차별도 없을 것이다. 제씨는, 일본문학의 세례를 받아, 언젠가는 일본문학을 졸업하고, 새로운 조선문학을 수립해 주었으면 한다.

애란인이 영어를 가지고, 새로운 애란문학을 일으켜, 영문학을 압도하였듯이, 조선청년이 일본어를 가지고, 새로운 조선문학을 일으켜, 일본문학을 압도하는 것도 당신들에게 있어서 회심의 일임에 틀림 없다. 많은 민족운동의 선구가 된 것은, 문예 운동이다. 신조선을 수립하는 선구도, 새로운 조선문학이 아니면 안 된다. 조선과 일본의 관계는, 앞으로 애란과 영국의 그것과 닮아 갈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조선에서 새로운 문학이 나와, 정세 상태에 빠진 일본문학에 자극을 주는 그런 시대가 오는 것도, 나만의 공상은 아니라고 생각된다.<sup>41)</sup>

위의 두 글을 자세히 살펴보면 삭제된 부분(밑줄 친 부분)들이 결코 “대강” 선택된 것이 아님을 눈치 챌 수 있다. 먼저, “(2행삭제)”에서 삭제된 부분은, 조선과 일본의 정치적 관계가 아일랜드와 일본의 그것과 유사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기쿠치의 전망이 피력된 부분이다. 이 글이 발표된 시점에서는 이미 자치령으로서의 아일랜드 자유국(Irish Free State)이 성립되어 있었고, 기쿠치의 전망은 이 점을 염두에 둔 것일 수도 있다. 만약 기쿠치가 자치령으로서의 조선을 전망한 것이라면, 이는 당시의 상황에서는 조선에 대한 호의적 전망일 수도 있지만, 실제 아일랜드의 경우에도 그랬듯이, 완전한 독립을 열망하는 조선인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전망인 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명시된 삭제보다도 중요한 삭제부분이 바로 조선문학의 언어에 관한 부분들이다. 삭제된 부분들을 보면, 조선에서의 일본어 교육과 그 자연스러운 결과로서의 조선인의 일본문학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거론

41) 菊池寛, 『菊池寛全集24』, 高松市菊池寛記念館, 1995, 113~114쪽.

되고 있다. 이처럼 조선인이 조선어가 아닌 일본어 창작의 길을 모색하게 되었다는 현상은, 일찍부터 아일랜드에 대해 큰 관심을 피력해 왔던 기쿠치가, 조선(인)을 ‘아일랜드’로서 위치짓기 위한, 더 없이 좋은 조건이 성립되었음을 의미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비로소 기쿠치는 영어로 쓰여진 ‘애란 문학’과 조선인이 일본어를 가지고 일으키는 ‘조선문학’을 완전히 겹쳐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사실, 이 일본어를 가지고 일으키는 ‘조선문학’이야말로 기쿠치가 조선청년에게 희망했던 것이며, 위에서 언급된 조선과 일본의 전망도 정치적 관계 뿐 아니라 이러한 언어면의 관계에 대한 전망을 포함하고 있는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방인근에 의한, 위와 같은 ‘이동’은, 언어 문제에 대한 명확한 언급을 소거시킴으로써, 기쿠치의 “희망”을, 민족운동의 선구가 된다는 조선문학의 사명에만 집중시키고 있다. 「조선문학의 희망」에서, 기쿠치는 ‘아일랜드’의 재현이라는 그 자신의 오랜 “희망”을 조선청년에게 위탁한 셈이다. 그런데, 당사자인 조선의 청년들에게 있어서 아일랜드 문학의 재현으로서의 조선문학은 단순히 “희망”적인 것이지만은 않았다. 그 때문에, 그 “희망”은, 조선의 청년에게도 진실로 희망적일 수 있는 것으로 변모되어야 했던 것이다.

아일랜드와 동일시됨으로 인해 조선문학의 필수요소로서의 조선어의 위상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이러한 불안이 현실적인 문제로서 대두되는 것은 1930년대 후반의 일이다.<sup>42)</sup> 주지하다시피 1930년대 식민지조선에서 성장한 ‘조선학’이, 하나의 ‘지방’ 또는 ‘향토’로서 제국일본에 포섭된 조선의 현실과 직면했을 때, 조선문화의 어떤 다른 영역보다도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 바로 조선문학이었다. 제국일본이 원한 ‘지방문학’, ‘향토문학’으로서의 ‘조선문학’은, 조선 작가들의 기대와는 달리 번역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일본어에 의한 ‘조선문학’ 쪽으로 기울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일본 낭만파의 대표적 인물로, 1938년에는 『문학과 국책』을

42) 그러나, 이는 물론 그 이전에 문학으로서의 조선어의 위상이 이미 확고했다는 것은 아니다. 1920년대 문학으로서의 조선어의 위상에 대해서는, 천정환, 『근대의 책읽기—독자의 탄생과 한국근대문학』, 푸른역사, 2003, 103~107쪽을 참조.

발표한 바 있는 하야시 후사오(林房雄)는, 일본어의 강요에 난색을 표하는 조선의 작가들을 회유하기 위해 아일랜드의 예를 거듭 언급한다. 예를 들면, “영국이 아일랜드에게 행한 정책은 어땠습니까? 그래도 아일랜드 문학은 있는 것입니다”, “아일랜드어를 사용한 문학이 존재하듯이, 결코 조선문학도 사라지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고집하지 않아도 됩니다”라는, 좌담회 「조선문화의 장래」에서의 발언이나,<sup>43)</sup> “언어와 문학이 뗄 수 없는 것인 만큼, 조선문학자 제씨의 고민은 깊으리라 생각된다. 긴 시간을 들이면, 두 개의 민족어의 융합이라는 것도 가능하다. 현재 영어의 풍부함은 많은 민족어의 융합의 결과이다”<sup>44)</sup>라는 기술이 그러하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 조선의 작가들도 또한, 아일랜드의 예를 언급하며 맞서게 된다. 예를 들면, 김사랑은 익찬회 문화부장인 기시다 쿠니오(岸田邦夫)와의 대담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며, 일본문학을 위해서도 조선어에 의한 조선문학의 존재가 긍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가 언어에 의해 힘입는 바는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문학이라든지 기타 예술에 있어서도 거기에 나타나는 독특한 전통을 가진 언어에 의하여 그 문화와 예술의 가치가 고양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문학의 예만을 취하여 생각해 볼지라도 켈트어의 애란문학을 포섭하고 있기 때문에 영문학이 위대한 것이고 또 노서아에는 우크라이나 문학이 있느냐 하면 페테르부르크 문학이 있습니다. (중략) 이런 의미만으로도 언어의 특수성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까지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하는데……<sup>45)</sup>

43) 「朝鮮文學의 將來(座談會)」, 『文學界』 6卷 1号, 1939. 1, 277쪽. 『경성일보』(1938. 11. 29~12. 7)에도 게재되었던 이 좌담회는, 하야시 후사오가 만주에 가는 도중에 조선에 들러 기획한 것이다. 때마침, 신헌(新協)극단의 「춘향전」 조선공연 전날이어서, 조선에 체류중이던 무라야마 토모요시(村山知義), 아키타 우자쿠(秋田雨雀), 장혁주 등도 참가하게 된다. 이 때문에 하야시의 의도에 반하여, 좌담회 초반은 「춘향전」의 번역과 조선문학의 언어문제에 집중된다. 조선 측 참가자는 정지용, 임화, 유진오, 김문집, 이태준, 유치진 등이다.

44) 林房雄, 「朝鮮の精神」, 『文芸』 8卷 7号(朝鮮文學特集号), 1940. 7, 196쪽.

45) 김사랑·기시다 쿠니오 대담 「조선문화 문제에 대하여」, 『조광』 7권 4호, 1941. 4, 29쪽.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켈트어의 애란문학”이라는 참조항이, 사실상 켈트어, 게일어(아일랜드어)에 의한 아일랜드 문학이 대부분 과거라는 시간에 가두어져 있는 현실 앞에서 얼마나 큰 의미와 힘을 가졌을지는 의문이다. 20세기 초에 일본과 조선에서 주목 받은 ‘애란문학’이 가리키는 것은 아일랜드어에 의한 것이 아닌 영어에 의한 것이었으며, 실제로 아일랜드 문예부흥의 주역들 중 대다수는 아일랜드어로 창작할 능력을 갖지 못 했다. 이같은 사실을 고려할 때, 즉 아일랜드에서 문학언어로서의 켈트어의 사어화가 상당부분 진행되어 있었음을 고려할 때, 여기서 거론되고 있는 “켈트어의 애란문학”이란, 아놀드가 관심과 연구의 대상으로서 허용했던, 과거 켈트어 문학의 잔존에 지나기 않게 되기 때문이다. 하야시의 발언이 드러내 주듯이, 영어로 쓰여진 아일랜드 문학, 즉 지배자의 언어로 일어난 ‘향토문학’, ‘민족문학’의 존재 그 자체가, 역설적으로, 지배자의 언어가 강요되는 현실에 대한 변명으로 기능할 수 있었다. 제국일본의 ‘향토문학’으로서 재배치됨으로 해서, 조선문학 건설의 희망과 조선문학 존재의 위기가 동시에 도래했듯이, 성공한 ‘향토문학’인 아일랜드 문학의 ‘이동’이라는 자기규정도 또한 조선문학에 희망과 위기를 동시에 가져올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어의 장래를 고려할 때 유리한 참조대상이지만은 않은 아일랜드 문학이, 조선문학의 정체성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거듭 언급되었다. 아일랜드의 게일어 부활 운동은 일찍부터 조선인들의 주목을 끌었지만, 조선에서는 아마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은 그 부활 운동의 성과에 현혹되어, 부활이라는 기획이 한 번의 죽음을, 아니면 적어도 그에 가까운 경험을 전제로 하는 것임이 절실히 인식되지는 않았던 듯 하다. 그 때문에 창작어로서의 조선어의 사활이 현실적 문제로 다가왔을 때에도, 아일랜드어의 사어화라는 현실적 상황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이 충분히 인식되지 않은 채, 아일랜드 문학에 대한 참조가 지속되었을 것이다. 임화와 같이 “조선문학을 애란문학과 비교하는 파렴치한”<sup>46)</sup>을 비난하며, 아일랜드 문학

46) 임화, 「조선어와 위기하의 조선문학 (7)」, 『조선중앙일보』, 1936. 3. 20.



과 조선문학의 동일화에 내재하는 식민주의적 논리에 반발하는 작가도 있었지만, 이것이 당시의 일반적 반응이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로부터 수 년 후, 아일랜드 문학과 조선문학의 동일화에 대한 조선 측의 반론은, 임화의 그것과는 전혀 다른 배경에서 제기되게 된다. 창작어로서의 조선어의 죽음에 더 이상 불안한 전망이 아닌, 눈앞의 현실로서 제시된 1942년 8월, 최재서는 ‘국민문학’으로서의 조선문학의 위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굳이 예를 들자면, 그것은 英吉利문학에서의 蘇格蘭문학과 같은 것이 아니겠는가. 그것은 영문학의 일부분이기는 하지만 蘇格蘭적 성격을 견지하고, 많은 공헌을 하고 있다. 또한, 언어문제가 소란스러웠던 시절부터 조선문학을 愛蘭문학에 비교하는 움직임도 있었던 듯 하나, 이것은 위험한 일이다. 애란문학은 과연 영어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정신은 처음부터 반영적이며, 英吉利로부터의 이탈이 그 목표이다.<sup>47)</sup>

스코틀랜드(蘇格蘭) 문학으로서의 조선문학. 이것은, 스코틀랜드 문학의 실제와는 상관 없이, 최재서에게 있어서 반제국주의적인 저항의 문학이 아닌, 제국의 일부로서 제국에 공헌하는 문학으로의 변모를 뜻한다. 이것은 ‘애란문학’으로서의 조선문학이 더 이상 실현 가능한 과제로 인식될 수 없는 상황에서 선언된 ‘아일랜드’와의 결별에 다름 아니다. 이 글은 창작어로서의 조선어도, 저항문화로서의 조선문학도, 모두 단념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절망적인 시대상황을 여실히 전해주고 있다. 그러나, 한 편으로 이 아일랜드와의 결별 선언은, 이 선언에 이르기까지의 세월, 조선이라는 땅에서 ‘아일랜드’의 재현이라는 희망이 지속되고 있었음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제국일본에서 모색된 ‘아일랜드’의 전유는 아놀드류의 켈트론에 의존하여, ‘민족성’의 동일성을 주장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켈트적’인 ‘일본인’의

47) 崔載瑞, 『朝鮮文學の現段階』, 『國民文學』2卷 7号, 1942. 8, 14쪽.

발견뿐 아니라, 켈트를 논할 ‘과학’과 ‘이지’를 소유한 ‘일본인’의 발견이기도 했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인’이 ‘아일랜드’를 전유하는 방식은, 이눌드적인 방식의 ‘이동’이라 부를 수 있을 만한 것이었다. 이러한 정치적/문화적 구도 속에서 누구보다도 ‘아일랜드’와의 접합을 욕망했던 문학자가 기쿠치 칸이었다. 그러나 ‘아일랜드’에 대한 그의 욕망은, 영국과 일본이 동일시된다는 또 하나의 현실적 접합에 의해 발생한 것인 동시에, 그러한 현실적 접합에 의해 끊임없이 억압될 수밖에 없는 성질의 것이었다. 이러한 억압 속에서 기쿠치가 ‘아일랜드’의 재현을 위탁한 것은 조선의 청년들이었다. 켈트가 그러했듯이, “정치적으로 사회적 핍박받고 있는 조선청년”도 또한, “문단”이라는, 유일하게 성공가능한 영역을 허락받은 것이다. 그러나 조선문학의 건설에 매진하는 조선의 청년들에게도, 조선문학을 거세하려는 자들에게도, ‘아일랜드’의 재현은 모순된 기획이었다. 영어라는 형식과 ‘반영적’인 내용의 ‘애란문학’은, 누구에게도 “위험”한 목표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이승희, 「조선문학의 내셔널리티와 아일랜드」, 민족문학사연구소 기초학문연구단 편, 『탈식민의 역학』, 소명, 2006.
- 이태숙, 「조선·한국은 아일랜드와 닮았다?—아나이하라 타다오의 아일랜드와 조선에 관한 논설」, 『역사학보』 182집, 2004. 6.
- 片山宏行, 『菊池寛の航跡—初期文学精神の展開』, 和泉書院, 1997.
- 三好みゆき, 「イングランドにおける「ケルト」像—雑誌記事を中心に」, 中央大学人文学研究所編, 『ケルト復興』, 中央大学出版部, 2001.
- 坂野徹, 『帝国日本と人類学者—1884-1952年』, 頸草書房, 2005.
- 酒井直樹, 『日本思想という問題—翻訳と主体』, 岩波書店, 1997.
- 鶴岡真弓, 「芥川龍之介の愛蘭土(アイルランド)」, 『正論』 314号, 1998. 10.
- 鶴岡真弓, 「「ケルト的なもの」はなぜ賞賛されたのか—近代国民国家の創造とケルト性」, 鎌田東二・鶴岡真弓編, 『ケルトと日本』, 角川書店, 2000.
- 荒木正純, 「翻訳、そのグロテスクなもの—序にかえて」, 筑波大学文化批評研究会編, 『多文化社会における〈翻訳〉』, 2000.
- 米谷匡史外, 「アジア／日本を貫く〈近代〉批判のために」, 市野川容孝・小森陽一編, 『壊れゆく世界と時代の課題』, 岩波書店, 2009.
- 小熊英二, 「単一民族神話の起源—〈日本人〉の自画像の系譜」, 新曜社, 1995.
- 谷川冬二, 「イエイツ、アーノルドを駁す」, 風呂本武敏外, 『テキストとコンテキストをめぐって—W. B. イエイツの場合』, 英宝社, 2006.
- 福間良明, 『辺境に映る日本—ナショナル리티의 融解と再構築』, 柏書房, 2003.
- Kelleher, John V., “Matthew Arnold and the Celtic Revival,” *Perspectives of Criticism*, Harry Levin, ed.,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50.
- Mattar, Sinead Garrigan, *Primitivism, Science, and the Irish Revival*,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 Pittock, Murray G. H., *Celtic Identity and British Image*,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99.
- Riodan, Maurice, “Matthew Arnold and the Irish Revival,” Wolfgang Zach and Heinz Kosok, eds., *Literary Interrelations: Ireland, England*

*and the World, 3 National Images and Stereotypes*, Tübingen : Narr, 1987.

Venuti, Lawrence, ed., *Rethinking Translations : Discourse, Subjectivity, Ideology*, London and New York : Routledge, 1992.

Young, Robert J. C., "The Complicity of Culture : Arnold's Ethnographic Politics," *Colonial Desire : Hybridity in Theory, Culture and Race*, London and New York : Routledge, 1995.

국문초록

# ‘아일랜드’의 전유, 그 욕망의 ‘이동(移動)’을 따라서

김모란

기쿠치 칸(菊地寛)과 마해송을 소재로 한 최근의 소설과 영화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제국일본과 식민지조선의 근대가 경험한 영국/아일랜드와의 접합은, 제국일본이나 식민지 조선 어느 한 쪽의 주체화에 의한 것이기보다는, 이 둘의 상호작용의 결과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제국일본과 식민지조선에서 ‘아일랜드’라는 것이 어떻게 기능하였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를 조망하는 기존의 분석의 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를 위해서는, 동아시아의 근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근대 유럽에서 ‘켈트’라는 타자가 주목받게 된 계기로까지 소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그 계기로서 아놀드의 켈트론에 주목하여, 이러한 켈트론이 제국일본에서 어떠한 켈트, 혹은 아일랜드 담론을 재생산하게 되었는가를 먼저 고찰하고자 한다. 그 후에 기쿠치 칸의 경우를 중심으로 아일랜드에 대한 일본의 모순된 시선을 살펴보고, 이어서 조선에서의 아일랜드라는 문제로까지 그 논의를 이어갈 것이다. 본 논문에서 기쿠치는 유럽을 기원으로 하는 켈트 담론과 제국일본의 아일랜드에 대한 모순된 시선, 그리고 조선으로 옮겨진 ‘아일랜드’의 재현이라는 꿈을 잇는, 하나의 연결 고리인 셈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 연결 고리를 따라 세 개의 시공간을 횡단하며, ‘켈트’ 혹은 ‘아일랜드’의 전유에 대한 욕망이 각각의 시공간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그들 사이의 연속과 단절, 혹은 반복과 변용에 대해서 고찰할 것이다.

**핵심어:** 기쿠치 칸, 마해송, 아놀드, 아일랜드, 대영제국, 식민지조선, 제국일본, 켈트, 전유, 민족성, 에스놀로지, 인류학, 애란문학, 조선문학, 이동

## 日文要約

## 「アイルランド」の領有、その欲望の〈移動〉を追う

金牡丹

菊池寛と馬海松を素材とした最近の小説や映画でも表象されているように、帝国日本と植民地朝鮮の近代が経験した、イギリス／アイルランドとの接合は、帝国日本や植民地朝鮮のどちらかの一方的な主体化によるものではなく、このふたつが向かい合う中で可能になるものであった。この意味において、帝国日本と植民地朝鮮で「アイルランド」なるものがどのように機能したかを理解するためには、この問題を思考する既存の分析枠をさらに拡大する必要があると考えられる。そのためには、東アジアの近代に留まることなく、当初近代ヨーロッパにおいて「ケルト」という他者が注目された契機にまで遡及する必要があるだろう。本論文では、その契機としてアーノルドの『ケルト文学研究』に注目し、アーノルドのケルト論が帝国日本でどのような「ケルト」、あるいは「アイルランド」言説を再生産することになったかをまず考察する。それから、菊池寛の場合を中心に据え、「アイルランド」に向けられた日本の矛盾したまなざしを確認し、最後に、朝鮮に移されることになった、「アイルランド」の再現という夢について考察する。本論文では、菊池寛というリンクをもって、このような三つの時空間を横断しながら、「ケルト」または「アイルランド」領有への欲望が、それぞれの時空間においてどのように現れるのかを確認し、それらの間の連続と断絶、そして反復と変容について考える。

**キーワード:** 菊池寛, 馬海松, アーノルド, アイルランド, イギリス, 植民地朝鮮, 帝国日本, ケルト, 領有, 民族性, エスノロジー, 人類學, 愛蘭文學, 朝鮮文學, 移動

• 접수 2009년 8월 31일 • 심사 2009년 9월 10일~30일 • 게재결정 2009년 10월 15일